



2026 손혜영의 춤 동행 태평의강

2026년 7월 25일 (토) 오후 5시 서울돈화문국악당
티켓 전석 20,000원 문의 02.3210.7001

주최 손혜영 주관 손혜영아정무용단 후원 국가무형유산태평무전승회 (사)벽파춤연구회

공동기획 SEUL MY SOUL Culture Bridge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돈화문콘서트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및 전승회 운영위원
- 아정무용단 예술감독
- (사)한국전통춤협회 대구지부 지부장
- (사)벽파춤연구회 회장 역임 및 상임이사
- 한영속춤보존회 상임이사
- 한춤페스티벌 운영위원장
- 봉산문화회관 운영위원
- 무형유산원 주최 뉴질랜드 재외동포 태평무 교육강사
- 박록주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사랑책 선정
- 금북문화재단 문화예술상 수상
- 동아국악콩쿠르 무용부문 금상 수상
- KBS 서울국악대경연 차상 수상
-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차하 수상

SON HYE YEONG

모시는글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깊은 산을 돌아 나오고, 바람을 품고, 긴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춤 또한 그러하며, 우리의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태평의 강〉은 국가무형유산 한영속제 박재희류 태평무의 깊은 예술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춤이 지닌 유장한 흐름과 생명의 결을 따라가는 무대입니다. 고요 속에서 시작된 한 호흡은 물결이 되어 흐르고, 절제된 움직임 안에서 태평의 기운은 점차 깊고 넓게 번져갑니다.

이번 〈춤동행〉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스승의 가르침 아래 변함없는 마음으로 춤을 이어오며, 그 안에서 각자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온 동행의 기록입니다. 30년을 훌쩍 넘긴 긴 인연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어져 왔고,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호흡하며 그 시간을 무대 위에 다시 피워냅니다.

우리는 같이 전통의 맥을 잇고 계승하면서, 스승에게서 받은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자신의 몸으로 되살려 오늘의 춤으로 이어갑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춤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늘 한 방향을 향했고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춤추는 몸은 강이 되어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여름의 깊은 숨결 위에 펼쳐지는 〈태평의 강〉.
그것은 전통의 강이며, 인연의 강이고, 한길을 걸어온 동행의 강입니다.

여기까지 춤 삶을 끌어주신 우리의 스승님께 감사하며, 오랜 시간 이어온 소중한 춤벗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마음의 풍경!
오늘 우리는 같이 〈태평의 강〉을 건너갑니다.

아정 손 혜 영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2026 손혜영의 춤 동행 태평의강

연출 손혜영

사회 이은진

총진행 서민정

진행 김희은, 이유진, 노경은

무대감독 이세영

조명감독 박정은

음향감독 강한결

디자인 이재봉

의상 신의상실

분장 박서정

프로그램

죽청난향 산조춤

출연 손혜영

2021년 초연된 손혜영 안무의 <죽청난향>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의 유려한 선율 위에 펼쳐지는 산조춤이다. 대나무의 곧은 기상과 난초의 유연한 향기를 모티브로 삼아, 강인함과 고고함이 공존하는 정서를 담아낸다. 대숲을 스치는 맑은 바람처럼 청아하고, 깊은 골짜기에 홀로 핀 난초처럼 절제된 기품을 지닌 이 작품은 한영숙-박재희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예술적 정서와 미학적 기운을 바탕으로 한다.



살풀이춤

출연 홍지선, 김문영

한성준-한영숙-박재희로 이어지는 살풀이춤은 철저하게 절제된 기운으로 깨끗하고 우아하며 정중동, 동중정이 가장 선명하며 민족의 정서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춤으로 내면을 향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인여옥 벽파입춤

출연 고수현

벽파 박재희 선생의 부채를 활용하여 안무한 입춤 형식의 작품으로 특정한 춤사위나 구성 없이 즉흥성이 강조된 춤이지만 점차 독자적인 양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옥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가인여옥은 그 제목과 같이 단아하고 절제미가 돋보이면서도 흥과 멋이 있는 여인의 심성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학춤

출연 강소정

학춤은 무용수가 학 형상의 복식(학탈)을 입고, 우아한 학의 자태를 묘사하는 춤이다. 오늘 공연되는 학춤은 1930년대에 한성준 선생이 학의 생태를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여 창안한 춤을 한영숙 선생이 더욱 가다듬어 발전시킨 학춤으로, 벽파 박재희 선생이 재구성하였다.



달천무 撻川舞

출연 김진미

김진미의 '달천무'는 입춤의 호흡과 형식을 내재한 춤으로 복류하는 달천강(撻川江)을 모티브로 역류된 세상을 향한 외치고 달렘을 정화로 풀어낸 씩김과 기원의 춤이다. 내재적 정신문화를 모체로 한국 춤의 참 맥을 찾는 '달천무'는 김진미의 들뜸과 가라앉힘, 완급 조절과 기교의 적절한 배분으로 달천강의 열과 혼을 정성껏 담아낸다.



태평무

출연 손혜영, 김세미, 방명희, 장희정, 고선옥

한성준-한영숙-박재희로 이어지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는 한성준이 1930년대에 국태민안을 염원하며 창안한 춤으로, 그 시대적 상황과 애민의 뜻이 담겨 있다. 절제미가 강조된 궁중무용의 특성과 민속무용의 신명을 잘 녹여낸 춤사위는 우리 민족의 정취와 기운을 품고 있다.



출연진



손혜영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 태평무전승회 운영위원
· (사)한국전통춤협회 대구지부장



김진미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강소정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 (사)벽파춤연구회 부회장



고수현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 (사)벽파춤연구회 부회장



김세미
· 손혜영아정무용단 회장



방명희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장희정
· 손혜영아정무용단 부회장



홍지선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김문영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고선옥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이은진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



서민정
·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전수자